

# 교회소식

1. 인도자 성경공부가 예배 후 1시 30분부터 느헤미야실에서 있습니다.
2. 세례(유아세례) 받을 성도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교육 후 5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3. 다음 주일은 권사회 기도주일입니다. 한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4. 한 주간 저녁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금요일 오후 7시에 저녁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끈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5. 어제 저녁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찬양 집회를 섬겨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6. 2021년 전반기 공동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위: 구약 역대하 18장 - 에스라 2장, 매일 3장).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시편 119:44).

## 공동 성경 읽기 일일 점검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18-20장	21-23장	24-26장	27-29장	30-32장	33-35장	36-2장

읽음 ○    덜 읽음 △    못 읽음 x

7. 성전 이전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 이태한 목사는 오uckland 한인 교회 협의회가 주관하는 목회자 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타합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A P R I L

## 교회사역일지

4월 4일(주일)  
 부활 주일  
 4월 11일(주일)  
 인도자 성경 공부  
 4월 12-16일(월-금)  
 저녁 기도회  
 4월 28일(수)  
 공동체 주관 예배

## 기도순서

4월 25일 (주일)  
 이광희 장로  
 4월 28일 (수)  
 박제란 권사  
 5월 2일 (주일)  
 이광희A 장로  
 5월 5일 (수)  
 박진영 집사

##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고석승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일기도 7:00 pm

##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16호 2021.04.18

##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Praise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요한복음 6:44-45	인도자
✧ 찬송	Hymn	8장	다함께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Hymn	287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박병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사도행전 16:1-10	인도자
찬양대찬양	Choir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Sermon	하나님의 뜻, 사람의 계획	이태한 목사
찬송	Hymn	나의가는길	다함께
헌금기도	Offering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 공동성경읽기	Closing Scripture		다함께
✧ 응답송	Closing Hymn	171장 (1절)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는 Prayer Together 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3일부터 회교 무슬림들의 라마단 금식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30일간 전 세계에서 계속되는 이 기도로 흠어진 기독교 선교사들이 다양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 라마단 기도로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도시에 사는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무슬림 인구 2백만 명 이상):** 무슬림이 사는 도시를 위해 기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입니다. 무슬림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성지이기 때문이지요. 이슬람의 시조 무함마드가 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하며,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오직 무슬림만이 이 도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카에는 약 2백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성지 메카를 방문하기 위해 온 무슬림들이 정착해 살기도 하면서 다양한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매년 2백에서 4백만 명의 무슬림 순례자들이 가장 큰 연례 행사인 성지순례 ‘핫즈(Hajj)’에 참가하기 위해 메카로 모여듭니다. 올해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가 핫즈 기간입니다. 도시의 주요 업무 대부분이 순례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핫즈를 운영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을 만큼 핫즈는 이 메카라는 도시를 이루는 중추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핫즈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메카의 상인과 주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무슬림들은 이 대규모 연례 행사를 계속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1. 메카의 주민들이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2. 성지순례를 마치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Prayer	박소진 집사
성	경	Scripture	창세기 4:1-12
설	봉	Sermon	참된 예배
	교		이성훈 목사
찬	송	Hymn	마음이 상한 자를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 2021년 4월 11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인생 길이 광야 길 같아도> 사도행전 8:26-40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일을 결단과 의지로 행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자입니다. 빌립 집사가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와 핍박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흠어지게 되었을 때 빌립 집사는 의지적으로 누구나 피하고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빌립 집사가 하기 싫으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으며(행 8:8)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마술로 명성을 떨치던 시몬까지(행 8:13) 세례를 받았습다(행 8:12).

**1)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26). 광야와 같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능성의 자리에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아닌 광야로 가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유한한 현실이 아니라 세상 끝에 드러날 영원한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지만 누군가가 가야 하는 곳,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 때(히 11:8)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어디든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광야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시는(사 43:20)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가야 합니다.

**2) 순종해서 간 광야에서는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광야까지 갔는데 이방인이며 저주받은 함의 자손인 에디오피아의 관리를 만난 것이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원망 대신 달려가 만났습니다(30). 영원하신 여호와와 생각과 계획을 믿고(시 33:11)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의식하던 못하던 하나님은 항상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마 28:20). 사는 동안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사 43:2).

**3)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38) 기쁘게 갈 길을 갔고(39) 이후 에디오피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빌립이 의도하고 계획한 바가 아니고 오직 주의 영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결과입니다(8:26, 29, 39). 아브라함과 롯의 출발은 같았으나 결과는 달랐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바라보며(창 13:10) 자기가 인생의 주체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실 때 바라보며(창 13:14)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니 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시 48:14).

우리가 아무리 광야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을 믿으며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어떤 환경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주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2. 시대를 분별하는 영안을 가지고 성도다운 거룩한 본을 보이도록.
3. 선교회원이 서로를 섬기며 공동체 예배에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